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성 정체성의 표현양상

송 명 진 · 채 금 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The Aspects of Sex Identity Expression in Contemporary Men's Fashion

Song, Myoung-Jin · Chae, Keum-Seok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0. 9. 15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aspects of sex identity in the contemporary men's fashion expressed through sexual image and taste in the latter half of twentieth century. The aspects of sex identity expression in the contemporary men's fashion can be classified by image, that is, homosexual, heroic, bisexual, and fetish. 1. The homosexual image has shown the tendency to emphasize the masculinity since 1950·60's. It can be found in 'Cowboys costume' which is typical of American traditional fashion, and jeans and underwear fashion expressed by muscular men has homosexual characteristics which contain narcissism. 2. Based on men's traditional gender role, the heroic image emphasizes men's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expresses tough and offensive masculine beauty in men's suit which is free from the authority and formality. 3. The bisexual image denied the division of gender role by costume and destroyed the traditional sex model by resolutely applying women's costume such as skirts to men's fashion. 4. The fetish image is similar to bisexual image in that they wear women's costume, but different in that it expresses sexual desire or fantasy. It is expressed through brilliant color, leather and metal ornaments, and sensual element of women which emphasizes "body". This shows the sex identity of contemporary men who want more sensible and free life.

Key words: sex identity, masculinity, homosexuality, bisexuality, heroism;

성 정체성, 남성성, 동성애, 양성성, 영웅성

I. 서 론

의복은 한 개인이 속한 문화 내에서 자신의 성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관을 습득하는 성 정형화 (sex-typing) 과정을 통해 개인의 성과 역할을 인식하도록 해준다. 각 시대와 문화마다 개인의 성격 특성, 태도, 선호경향, 행동 등에 관련하여 남녀를

구분하도록 합의된 관념인 "성 역할"이¹⁾ 의복을 통해 터득되고 의복은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성과 성차에 관련된 특성들은 현대패션에서 표현의 원동력이 되었고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는 모든 창조적 활동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각 시대마다 다양한 복식양식을 통해 자신들의 변화하는 성격 특성을 가시화해 왔다. 반면, 남성들은 19세기 이후 거의 2세기 동안 모

든 사회적 체제들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남성의 거부(the Great Masculine Renunciation)”²⁾라고 표현되는 바와 같이 변화를 거부하고 고정된 의복 스타일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여성만이 해방의 대상이 아니며 남녀공동의 인간 해방 및 주체성의 해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전환에 따라 남성들에게도 역할과 외모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보다 과감하고 자유분방한 성적 이미지가 표현되고 있어 권위와 형식성에서 자유로워지고 비 형식성을 추구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패션을 통해 생물학적인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에 근거하여 형성된 다양한 성적 이미지가 표현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동안 이면에 감추어져 있었던 성적 취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상징화하는 시도 또한 활발하다. 최근 남성복과 관련하여 동성애적이고 성 도착적인, 때로는 가학·피학적 변태성욕 등 왜곡된 성적 취향을 공언하는 것이 현대 디자이너들의 창작에서 대표적인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패션에 나타난 성 개념의 변화에 대해 Carolyn G. Heilbrun(1973)³⁾, Fred Davis(1992)⁴⁾, Marjorie Garber(1992)⁵⁾, Anne Hollander(1994)⁶⁾ 등이 성적 이미지와 성적 취향과 관련하여 그 양상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민선(1993)⁷⁾, 김이은(1995)⁸⁾, 채금석(1999)⁹⁾ 등이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중성 등 복식에 나타난 성적 이미지에 대해 연구한 바 있으며, 더불어 복식에 나타난 페티시즘(Fetishism)이나 동성애와 같은 성적 취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성적 이미지와 성적 취향에 근거하여 현대패션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남성의 성 정체성의 표현 양상을 20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근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성복식미’의 전형을 제시하였던 근대 남성복에 내재된 전통적 성 정체성을 고찰한다. 둘째, 전통적 남성상에 대해 저항·변화·수정의 반복된 과정을 거쳐 등장한 남성패션의 일탈적 성 이미지를 고찰한다. 셋째, 성적 이미지 측면에서는 남성성을 강화한 영웅적 이미지 및 이분된 성 개념과 역할을 통합시킨

양성적 이미지를, 성적 취향 측면에서는 동성애 이미지와 성 도착적 이미지로 나누어 고찰한다. 이를 위해 사회현상학과 복식심리학, 복식미학 분야의 논문과 평론 등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이론적 접근을 하고, 디자이너 작품집과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소개하는 패션잡지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앞서 제기된 남성의 성 정체성 표현양상과 연계되는 패션 현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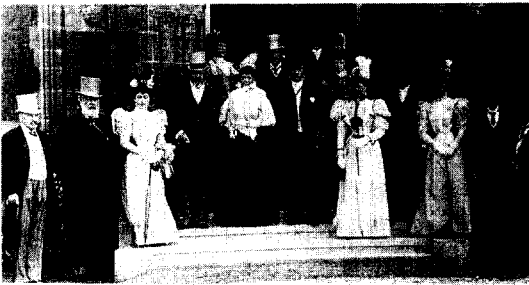
현대 남성들에게 성 정체성의 표현수단이 되고 있는 패션에 대한 연구는 사회 역할과 여성과의 관계변화에 따라 부여된 남성패션의 다원적 표현성과 그 상징적 의미를 이해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새로운 패션의 주제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남성복의 특성을 재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II. 근대 남성복에 표현된 남성적 이미지

남성복이 여성복과 차별화 되는 점은 그 스타일 범주가 넓어 특정한 나라나 문화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공유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복 보다 남성복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철학과 편견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¹⁰⁾ 설명해준다. 도덕과 품위가 전제된 신사다운 행동을 중요시하며 천박함을 경시하는 태도들은 남성복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적당한 남성복’이라는 고정관념이 남성들에게 확고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이후 등장한 남성정장에 근원을 두고 있다.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민주적인 요소 그리고 성과 계층에 대한 새로운 계층의식의 성립은 변화된 사회와 집단을 가시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의복 코드를 요구하였다. 남성복은 귀족풍의 장식적이고 화려한 외모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주역이 된 부르조아 계층을 중심으로 실용적이고 단순한 의상으로 유니폼화 됨에 따라 사적인 역할보다는 사회적 역할에 의해 더욱 확연한 특징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복식심리학자 John Carl Flügel은 남성들이 스스로를 의무나 자기통제(self-control) 등으로 상징화하기 때문에, 남성복이 여성복 보다 더욱 도덕적인 면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¹¹⁾. 남성 정장의

두꺼운 소재와 테일러드 된 옷 구조의 견고함 그리고 검정색 구두의 수수함, 풀을 먹인 흰색 셔츠 갖의 정결함 속에서 남성들은 의지, 강경함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특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색이 제거된 무채색 사용과 뻣뻣하고 소박한 옷감 사용을 특징으로 하여 이성적 사고와 힘, 공격성, 사회적 권위 등과 같은 남성적 이미지가 부여되었다. 반면 여성복에서는 자기 도취적인 나르시즘을 표현하는 장식적인 복식으로 남성복과 확연히 구분되었다(사진 1).



[사진 1] 19th Century's Fashion, 'Men's Fashion--In The Twentieth Century', 1997, P. 7.

근대 남성복의 형태는 고대의 고전적 형태 속에서 근대적 미의 이상을 추구하였던 신고전주의 예술양식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강하면서도 단순한 고대 원형에 근거한 신고전주의 건축 형태에 대하여 당시 미학 이론들은 '사내다운(virile)', '근육질의(muscular)'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복식에서 이와 상통하는 개념들이 남성들의 정장에서 등장하였다¹²⁾. 고대 누드 조각상에서 볼 수 있는 복부, 둔부, 가슴 등의 명확한 윤곽선은 팔과 다리, 머리, 근육 등과 함께 가장 순수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의복에 있어 여기서 재발견된 자연적인 해부학의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졌다. 인체를 존중했던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의 인체 보다 더욱 아름답게 평가받았던 것은 건장한 남성 영웅의 누드였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남자 누드상의 완벽한 인체미는 남성의 타락하지 않은 도덕적·정신적 자질에 대한 시각적인 표현이기도 하였다¹³⁾. 근대의 재단사들은 완벽한 의복의 제작기술을 통해서 고대 누드를 개조하여 봉제상의 규율에 맞도록 형태를 창조

함으로써 장식되지 않은 남성신체의 완벽한 이미지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미학적 측면과 더불어 근대 남성복의 정신적 측면에는 신고전주의의 근원이 되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로마 기술의 명징성과 함께 강인함을 암시하고¹⁴⁾ 부르조아 문화의 본질을 이루는 의회 민주주의, 사업, 정의, 남성다움, 애국심 등과 같이 남성들이 갖추어야 할 품위와 사회적인 권위가 내재되어있다. 그러므로 건전한 인격적 미덕이 신체적 남성미를 과시하는 남성들의 우월한 성 정체성을 구현함으로써 근대이후 오늘날까지 '남성성'을 대표하는 사회적 코드가 되어왔다. 이러한 고정관념 속에서 예술적 감각에 따라 잘 차려입은 남성들의 현란한 의상은 동성애자와 같은 일탈적 성 경향을 암시하게 되었다¹⁵⁾.

III. 남성복에 나타난 일탈적 성 이미지

20세기 전반부까지도 패션현상은 '하향 전파설(Trickle-down Theory)' 이론이 지배적으로 적용되었고, 남성패션도 대체로 귀족과 부유층, 지식인들과 같은 사회의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반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젊음의 혁명, 대량생산, 대량소비와 같은 현상들이 패션의 주된 흐름을 조성하여 개성과 다양성을 주장하는 패션 현상들이 나타났고, 많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들의 분기점은 1950년대 이후 1960년대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변화의 시기였다.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 변화, 성의 해방, 전통적 결혼제도의 불안정 등으로 성별에 대한 차별현상이 점차 와해되어 갔다. 동성애자의 해방운동, 여성의 해방운동 그리고 환경운동과 평화운동 등에 의해 사회의 분위기가 급변하였던 이 시기 청년문화와 함께 쾌락주의적인 가치들이 가속적으로 등장하고 보다 개인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들이 시도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기호와 행동에 따라 패션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의미가 부여되었다¹⁶⁾. Block이 특정 문화가 남녀에게 기대하는 태도, 성격, 정서적 반응, 행동 등이 개인을 통해 발달되는 과정에서 성 역할이 변화하고 이는 각 문화마다 다르고 한 문화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

천하게 된다고¹⁷⁾ 주장한 바와 같이, 남녀의 심리적이 차이가 단지 생물학적인 차이에 기인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의한다는 것을 패션현상을 통해 그대로 나타냈다.

그동안 사회적 역할변화에 따른 여성 복식의 변화 양상은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많은 수용을 이끌어 낸데 반해, 남성복식에서 전통적인 성 이미지의 파괴는 반사회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와 같은 불건전한 양상으로 인식되어왔다. 그 이유는 남성복에서 일어났던 변화의 주류가 열등한 소외계층이었던 여성취향을 보이거나 변태나 도덕적 타락 행위로 여겨졌던 동성애 성향을 암시¹⁸⁾하였다는데 있다.

이러한 예로, 17세기 프랑스에서 성행하였던 Macaronis 패션은 여성적 외양과 태도로 인해 불건전한 패션으로 언급된다. Macaronis 패션은 구세대들의 인습을 타파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이 정치적 운동의 일환으로 선택하였으나, 당시 남색(男色)을 비롯한 기괴한 성적 관습이 성행하였던 이탈리아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유와 함께 여성복과 같은 장식과 과장은 물론 여성적인 몸짓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착용자들은 반사회적 인물로 평가되었다. 또한 기존의 사회질서에 회의를 느끼고 변혁을 추구하던 19세기 말 '댄디(Dandy)'의 등장은 새로운 남성상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반 귀족·반 부르조아를 표방하는 배타적 하위문화 집단으로 가족이나 타인과의 친분관계를 기피하고 성생활에서의 구속이나 가족부양 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신 도시인으로서 단지 자신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나르시스트였다. 남성의 우월성은 아주 개인적인 시각에서 섬세하고 완벽한 의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여겨서 옷에 있어서의 재단이나 어울림을 중요시함으로써 남성복의 새로운 미를 조성하였다. 즉, 지위와 연관된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 외관상의 지표 없이 외형 그 자체로서만 완벽해야함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복식은 넓게 강조된 가슴, 숨을 넣어 넓어진 어깨와 함께 허리를 꼭 조여 전반적으로 곡선을 이루었으며 길게 강조되고 밀착된 바지, 세계 풀을 먹여 목을 둘러싼 칼라 등으로 완벽하게 외모를 연출하였다. 지나치게 자기치장에 힘쓰는 댄디들의 태만과

무책임은 비난을 받았으며, 이러한 태도들은 관찰자적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타인 앞에 드러내어 보여주는 과시적 행위에 속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나르시스트적인 것이었고 다분히 여성적 태도로 인식되었다. 댄디들은 기존의 남성복에 담긴 남성상을 거부한 하위문화의 출발점으로서 개인적인 성적취향과 무관하게 동성애자로 인식되었다.

20세기에 들어 심리학자들은 남녀 모두가 현대사회의 한 인간으로 자신이 가진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급진적인 역할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로써 남성과 여성의 우수한 특성이 상호 보완하는 양성성(androgyny)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의식의 변화는 댄디 이후 남성들의 고정화된 의복착용을 탈피하고 양성적 경향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미국의 캐주얼 룩과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Teddy Boys, Mods, Hippie, Unisex로 이어지는 하위문화 집단들은 복식에서 여성성을 공유한 복식 아이템과 형태로 양성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더욱이 재단사들의 정교하고 일률적인 규칙에 의해 형성되었던 남성복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여성복과 같이 디자이너들에 의해 진행되는 패션의 궤도에 들게 되었고, 다양한 색상과 무늬, 부드러운 소재, 러플 등의 장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공작의 혁명(peacock revolution)'으로 지칭된 남성들의 화려하고 감성적인 변모는 패션계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다.

20세기 후반 남성복에서의 일탈적 성 이미지는 여성화의 방식뿐만 아니라 남성 신체와 복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더욱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IV.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정체성의 표현양상

현대 남성패션은 전통적인 성 역할 개념이 와해되고 의복이 개인적이고 쾌락적인 감성의 표현 수단이 됨에 따라 다양한 성적 이미지와 성적 취향을 표현하고 있다. 성적 취향과 관련하여 동성애 이미지는 여성성의 상대적 개념이었던 전통적인 남성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면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선호경향으로 인정받고 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일종의 의복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복의 특정한 스타일보다는 동성애자에 의해 선택된 옷차림이라는 인식이 한 사회 내에서 공유될 때 그 의복은 동성애의 성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코드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성적 이미지에 속하는 양성적 이미지는 의복을 통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gender role)의 구분을 없애고 성에 구애받지 않고 이성의 의복을 공유하고자 경향이며 유니섹스(Unisex) 룩이나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룩 등이 그러한 예이다. 성 도착적 이미지는 남성이 여성의 복식을 착용한다는 점에서는 양성적 이미지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의복의 공유차원을 넘어 성적 취향을 표현함으로써 그 착용 의도나 표현의 초점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환상 등에 맞춰져 성적으로 전도된 남성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별개의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성 패션의 이미지들과 달리 근대 남성복과 같이 남성 정장을 통해 남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양상이 영웅적 이미지로 파악된다. 이는 남성 정체성의 고전적 속성인 가부장적 지배력과 우월성을 암시하면서 사회적 성공과 엘리트적 속성 또는 신체적 힘을 표현하는데 기인한다.

1. 동성애 이미지

패션에서의 동성애(homosexuality) 이미지는 이성의 복식을 착용하는 복장도착(transvestism) 행위에서 대표적으로 표현된다고 간주되어왔다¹⁹⁾. 이러한 인식은 여장남자인 drag 또는 여자로서 남장을 하고 남자의 역할을 하는 butch의 의복행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복장도착 행위에 관한 많은 연구를 통해 동성애자와 같이 성 역할(sex role)이나 성적 취향에 따른 신체적 표시와 관계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동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 중에서도 심리적·정신적 특성을 반영하여 이성복장을 채택하는 복장도착자가 존재함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이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의적이므로, 이들 두 집단 간의 정체성 논란이 제기되

기도 하였다. 독일의 성과학자 Magnus Hirschfeld는 복장도착행위에 있어 가슴이나 성기 등 신체적 표시로써 이성의 복장을 착용하는 행위는 동성애와 관련이 있고, 옷을 대상으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성 역할을 표시하는 것은 복장 도착자의 행위라고 설명하였다²⁰⁾.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복장도착행위는 여전히 동성애자로 간주되는 가운데 이성의 복장착용에 대한 사회 내에서의 부정적인 평가는 AIDS에 대한 공포로 인해 더욱 증대되어 문화적 소외현상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정체성의 혼동으로 인해 남성 동성애자의 이미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복식코드가 등장하여 20세기 후반 남성패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화려하고 여성적인 의상이나 선정적인 머리염색, 매니큐어 등의 여성적 모습과 대조되는 남성의 건강한 이미지에 기인한 건강한 신체조건인 남성상은 동성애 집단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여성적 스타일에서 탈피하여 근육질의 모습을 과시하고 T-shirts, 스포츠 유니폼, 짧게 깎은 머리, 턱 수염 등 전형적인 남성의 코드들이 채택되었다²¹⁾. 사내다운 새로운 스타일을 통해 동성애 집단의 자부심을 세우고자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자신의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련된 특수성을 공언하는 자신감 넘치는 자유의 표현으로서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일소하는 수평적인 태도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고자하는 의도로 이해된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색다른 복식 아이템과 접근법으로 남성패션에 동성애 이미지를 창조해 내고있다. 이러한 남성패션의 변화는 신체의 강조를 통해 매혹성을 과시함과 더불어 자신들에게 부가된 사회적 임무를 편안히 수행할 수 있는 의상을 원하는 현대 남성들의 욕구에 부합함으로써 광범위한 호응과 성공을 이끌고 패션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사료된다.

1) 미국 전통적 남성상의 동성애 이미지

짧음을 숭배하는 풍조와 스포츠의 이상을 추구하는 20세기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멋있고 남자다우며

힘이 넘치는 이미지는 이상적 남성상으로 부각되었고, 단호하고 섹스어필한 면모가 남성미의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다. 'wild' 나 'tough'의 미사어구와 함께 남성미를 연상시키는 것은 바로 미국 서부를 배경으로 한 cowboys이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cowboy들은 용감한 개척정신과 힘으로 광활한 대륙을 평정한 남성적 영웅상 자체였고 참다운 자유와 정의의 이루어낸 상징적 존재였다²²⁾. 제약이나 구속에서 벗어난 이들의 모습은 가장 미국다운 정신을 잘 나타내주는 인간상으로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고 영국인을 비롯한 유럽 남성들의 모방을 거부하고자 확고한 신념을 제시하는 존재였다. 20세기에 이르러 cowboy들은 활동성과 미국 낙천주의를 대표하는 전통적 상징으로 인식되었고 그들의 복장은 평등주의와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세계적으로 수용되었다. 미국인들의 이러한 의식의 영향으로 미국의 남성복은 유럽에 비하여 권위적인 요소가 배제되고 캐주얼화 되는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사진 2).



[사진 2] American Traditional Men's Fashion : Cowboys, 『The Man of Fashion』, 1997, P. 127.

유럽인들은 이러한 cowboys의 전형에 대해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당시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비속함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cowboys의 강화된 남성미의 이면에는 수많은 남성들이 도회지와 먼 곳에서 성적 욕구의 해소방법을 찾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과 함께 남성들간의 긴밀한 인간관계를 중시한데서 동성애를 상징하고 있다. 이미 Walt Whitman의 'Leaves of Grass', Mark Twain의 'Huckleberry Finn' 등의 예술작품에서 이러한 cowboys들의 동성애에 대한 한 양식들이 인간의 관능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창작활동 속에서 암시되

고 있다²³⁾. 또한 미국의 Pop 예술가 Andy Warhol은 엘리트 의식에 반기를 들고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메시지로 인간의 섹스와 매력을 강조하여 창작하였는데, 1968년 영화 'Lonesome Cowboys'에서 cowboys에게 내재되어 있던 동성에 경향을 상기시킴으로써 cowboys의 동성에 이미지를 명확하게 단정지어 보였다. 예술가들의 이러한 낭만적인 표현들은 동성애에 대한 수용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문화의 한 양식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cowboys의 동성애적 속성은 남성의 성 정체성을 논한 Elisabeth Badinter (1992)²⁴⁾와 Colin McDowell(1997)²⁵⁾, Wilson Laurel E.(1996)²⁶⁾등의 복식사적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다.

1970년대 이후 남성 동성애자들은 미국인들에게 신화적 인물이었던 cowboys의 영웅적 남성상과 더불어 cowboys의 재킷을 착용하여 자신들의 정체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인식에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후 cowboys 패션의 기본적인 아이템인 Check 무늬 shirts, Shaded Vest, Stetson hats, High boots, 그리고 Jeans 등은 디자이너의 상표가 부착되었고 '긴 다리선의 강조(straight legs)'와 '앞여밈(button flies)의 강조'를 통해 관능적인 의복으로 재등장하였다. 이 아이템들은 지위와 과시를 목적으로 하는 값비싼 장신구와 우아한 재단기술을 거부하여 남성 패션의 전통을 붕괴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남성의 활동적인 신체를 과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스타일로 자리하였다. 디자이너 Ralph Laurent은 현대의 도시와 조화되는 서부의 전통을 패션으로 재창조하면서 '동성애'라는 성적 취향의 유사성을 매개로 이용하여 낭만적인 패션을 이루어 내었다. 미국 전통적 남성상인 cowboys의 패션은 장식적이고 화려한 여성취향으로 대표되었던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거칠고 강인한 남성성을 새로운 복식코드로 부여하는 동기가 되었다. 이로써 비정상적인 경향으로 인식되었던 동성애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유도하고, 남성패션은 더욱 다양한 스타일과 이미지로 개인적인 성적 특성을 공연하고자 하는 확신을 반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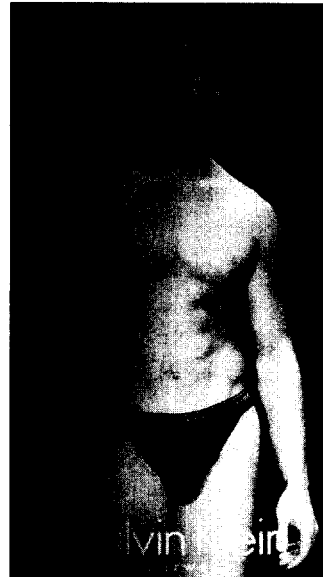
2) 나르시즘(Narcissism)적 동성애 이미지

현대인들은 사회적 위치나 성공의 징표로 패션을 선택하기보다는 패션을 통해 자신의 생활에 활기와

즐거움을 얻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최신의 흐름을 원하며, 젊어 보이도록 노력한다²⁾. 젊음을 숭배하여 육체와 자기 자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풍조 속에서 패션과 아름다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여성의 육체만큼이나 남성의 육체에도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양한 체력기구들을 이용하여 자신을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남성들의 모습은 이제 익숙한 것이 되었고, 그 양상은 근육질의 스포티한 남성미를 통해 젊음을 과시하는 전형적 스타일로 나타났다. 스포츠와 함께 하는 남성의 육체는 건강, 힘, 정력, 여유 등의 이미지를 전달하여 넘치는 남성미를 형성하고 무엇인가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노출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해준다. 이로써 타인을 의식한 어떤 유희성 보다 긍정적인 자기몰두로 비쳐질 수 있다. 그 내면에는 명백한 자아 도취적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자기 자신의 멋진 신체에 스스로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집착하는 나르시시즘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동시에 사회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매혹적인 자신의 육체에 대한 인식과 노출은 남성에게 있어 동성애자를 상징한다³⁾. 남성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던 1970년대 사회에 있어 성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바로 남성 동성애자(gay) 문화에 힘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미국의 대도시에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클럽, 레스토랑, 체육관, 목욕탕들이 공공연하게 생겨났으며 남성다움에 대한 새로운 스타일은 의상에서 빠르게 반영되었다. 목에 둘러진 화려한 chiffon 스카프나 보석과 같이 부드럽게 순화되어온 유행스타일들이 사라지고 대신에 운동복과 리바이스 청바지, 사파리 형태의 작업복, 워커 부츠 등이 대거 등장하였다⁴⁾. 이와 더불어 검고 무성한 콧수염과 구레나룻, 요란한 가죽옷 등과 같은 특이한 착장법을 이용한 남성 동성애자들은 남성미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1980년대 Calvin Klein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신체적 이미지에 근거하여 이전에는 전혀 에로틱하지 않았던 아이템인 속옷을 화려하고 멋지게 변모시키고 속옷을 입고 있는 남자모델의 사진에서 동성애적 분위기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힘은 이성을 대상으로 한 왕성한 성욕이 아니라 자기

애에 몰두한 나르시즘을 전달해 주었다(사진 3)⁵⁾. 남자 모델은 Calvin Klein의 속옷을 입고있는 자신의 완벽하게 가꾸어진 신체 속에서 성적 회열을 느끼고 있는 듯하며, 육체를 가리고 있었던 의복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관능성에 도취되어 있는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이는 광고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자기애에 빠진 남성의 에로틱한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신체에 집착하여 성적으로 상징화하였던 기존의 고정관념을 전복시키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이와 함께 Calvin Klein은 디자이너의 상표가 붙은 고급 Jeans를 최초로 생산하였고 젊은이의 감성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젊은 남성들의 새로운 성적 정체성을 접목시켰다. Jeans는 매우 친숙한 의복이지만 단순한 T-shirts와 함께 착용자의 나체를 강조하기 때문에⁶⁾ 강인한 남성미를 제시하는 Jeans의 전통적 이미지와 함께 남성의 육체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Calvin Klein의 패션은 디자이너의 이름이 허리밴드에 대담하게 부착된 속옷을 Jeans의 허리 아래로 낮게 걸쳐 입어 팬티의 위 부분이 보이도록 하는 새로운 착장을 시도하여 더욱 큰 관심을 유도하였고 여성들에게도 각광을 받게 되었다. 또한



[사진 3] Narcissism Image of Men's Fashion, Calvin Klein(1996), 『The Man of Fashion』, 1997, P. 175.

옷을 벗고 Calvin Klein의 청바지와 속옷을 입고 있는 여성 모델의 광고 사진은 이성과 무관한 동성애에 대해 일종의 개방과 허용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계급에서 유래된 의상이나 평범한 속옷 등 의외의 아이템들을 남성다움에 대한 동성애자들의 환상이 담긴 산물로 전환시킴으로써 남성패션과 관련된 성적 다의성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2. 영웅적 이미지

전통적으로 남성복은 여성의 경우 보다 T.P.O에 따라 엄격한 착용규칙이 준수되어 옷의 용도에 따른 기준이 명확하다. 이를 크게 구분해 보면 일을 할 때 입는 고전적이고 보수적인 정장과 레저나 스포츠웨어와 같이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한 옷으로 대조되는 두 영역이 있다³⁰⁾. 현대패션을 특징짓는 캐주얼화에 따라 자연스럽고 실용적인 옷이 선호되고 기존의 분리된 옷의 영역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19세기 후반 남성복에서는 스포츠 웨어에 착안하여 정장 수트를 변화시킨 편안한 재킷이 등장하였다. 당시 일상복도 아니고 포멀웨어도 아닌 막연한 옷이었던 이 재킷은 교외 스포츠나 오락이 대중화되면서 일부 상류층 신사들이 착용하였다. 여가시간을 위한 별도의 재킷을 소유한다는 것은 귀족 남성의 신분과 부(富)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상류사회의 생활습관이 되어버린 여러 가지 스포츠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해 주며 또 도덕적인 덕목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현대 상류사회나 비즈니스 사회의 신사들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들은 과거 귀족들의 스포츠웨어에 기원을 두고 의복을 착용하는 경향이 있다³¹⁾.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1970년대 남성복의 수트와 재킷을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며 헐렁한 진동과 둥근 어깨, 깊게 파진 라펠, 짧아진 뒷자락 그리고 허리부분이 느슨해지면서 캐주얼한 재킷으로 변화되었고, 이와 함께 헐렁한 바지와 저지로 된 넥타이와 셔츠 등이 착용되었다. 이후 레저복과 스포츠 웨어의 영향으로 남성들의 권위적인 정장 수트는 많은 현대 디자이너들에 의해 비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었고, 젊고

건장한 남성의 신체를 과장 없이 감싸도록 만들어져 넘치는 남성의 성적매력을 발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같이 스포츠처럼 신체를 효과적으로 전시하여 보여줄 때 남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경쟁심과 성취감 등의 내재화된 규범과 일치하는 것이다³²⁾.

1980년대 중반을 대표하는 Giorgio Armani의 비구조적 의상 스타일은 남성의 신분과 부를 상징하고 강한 육체적 특성을 강조하여 남성들을 강화시키는 대표적 패션으로 여겨진다. 비즈니스 수트를 대표하는 'power dressing'으로써 젊고 출세 지향적이며 활동적 전문인력들의 상징적 의상이 되었고 비즈니스 웨어와 레저 웨어 사이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기도 하였다³³⁾. 우아하고 고도로 minimal 아트적인 Giorgio Armani의 의상들은 모든 업무와 사회생활 대부분에 적합한 여유있는 의상을 구입하려고 하는 젊은 남성들의 취향을 잘 반영한 것이었다. Giorgio Armani는 현대 남성성을 대표하는 근육질의 남성신체에 초점을 맞추어 멋진 체격을 갖춘 운동선수들이 의상을 착용했을 때처럼 부드러운 소재를 이용하여 몸에 딱 맞도록 디자인하였다. 이로써 과장되지 않게 상체를 감싸고 인체의 동작을 그대로 반영해 표출하는 정장 수트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탈리아의 Dolce & Gabbana와 독일의 Hugo Boss, 그리고 벨기에의 Martin Margiela 등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들이 디자인하는 여성복이 도발적인 섹시함이 특징인 반면 남성복은 남성의 힘과 확신이 표현되었고, 공격성과 엄숙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군복의 아이템과 이미지를 매우 정선되고 세련되게 제시하였다. 또한 영국의 디자이너 Stephen Linard는 1980년대 후반 패션과 성에 대한 혁신을 표명하고 썼지 않고 턱 수염과 문신 등으로 정체되지 않은 거친 사내다움에 근거하여 투명한 오간자 셔츠, 아스트라칸 칼라가 달린 거대한 코트, 패치 된 바지 등으로 매우 공격적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패션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성화 경향으로 남성들의 외모가 장식적이고 유약하게 여성화되어 가는 경향 속에서 남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신체적 매력을 강조해주어 영

웅적 때로는 공격적 이미지를 제시해주는 패션은 정체성의 혼재 속에서 고유한 남성의 이미지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남성복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남성복에 내재되어 있는 영웅적 우월감과 함께 육체에 깃든 강한 에너지로 힘든 세상에 대응하기 위한 남성들의 무장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젊은 남성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전통적 성 역할의 기반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기세에 대하여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근대에 누렸던 우월성을 상실하고 위축되어 가는 현대 남성들에게 사나움의 강화를 영웅주의를 부추기는 것이다. 또한 우월한 사회적 지위와 승리를 차지하기 위해 신체를 단련하고 용기나 결단력, 인내력, 의지 등으로 정신무장을 했던 군인처럼 영웅적이고도 공격적인 성 정체성이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사진 4).

3. 양성적 이미지

의복 스타일에서 점차 남녀간의 성 차이가 줄어드는 양성적 패션의 경향은 남성복이 독창성과 유희를 특징으로 하는 패션의 레도에 진입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남성들은 여성만이 사용해왔던 러플장식, 자수, 액세서리, 긴 헤어스타일 등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성의 의복착용은 여성의 경우 일반적인 일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남성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금기항목이 남아있고 사회의 통념 상 충격적이고 기초 질서를 뒤엎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항목은 여성의 스커트이다. 1966년

Tony Barns와 디자이너 Jacques Esterel이 스커트를 현대 남성복에 최초로 도입시킨³⁶⁾ 이후 1970년대 남성 rocker들도 스커트를 화려한 장신구나 메이크업과 함께 착용하여 극적인 이미지를 연출한 바 있다. 1984년 가을 남성복 컬렉션에서 Jean Paul Gaultier는 대담하게 스커트를 제안하였다. 그동안 남성복의 여성화가 이루어져 왔지만, 디자이너에 의해 하이패션으로 제안된 남성용 스커트는 매우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스커트를 착용한 남성은 금기된 의복코드에 대한 파괴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줌으로써 양성적 코드를 암시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금기 시 되었던 남성패션의 관념들을 파괴한 Gaultier 등의 디자이너들은 아방가르드 한 남성패션을 창조해 내었다(사진 5). 이후에도 sarong을 입고 깃털 목도리를 두른 건장한 젊은 백인 남성과 표범 가죽옷을 입고 루비 장신구로 장식한 흑인 남성 모델을 등장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여성복식 요소를 남성복에 도입시켰다. 그리고 남성관에 있어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영국 런던에서 디자이너들은 그러한 계급의 장벽에 도전이라도 하듯 화려하게 채색되고 은색과 유리로 장식되거



[사진 4] Heroic Image of Men's Fashion, Hugo Boss, 『A History of Men's Fashion』, 1993, P. 321.



[사진 5] Bisexual Image of Men's Fashion, Jean Paul Gaultier, 『Men's Fashion—In The Twentieth Century』, 1997, P. 125.

나 Op Art 나 동물 문양으로 뒤덮인 의상들을 통해 반항적 신념과 힘을 표현하였다. 특히 Richmond와 Cornejo는 3D-파괴(Destroy), 혼란(Disorientate), 무질서(Disorder)를 의미하는 상표와 함께 성의 전형에 대해 도전을 하였다.

흔히 현재의 남성은 100년 전 바지를 착용하기 시작했던 여성들과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예전에 여성들이 바지착용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권리 확대를 의도했던 바와 같이 남성들의 스커트 착용은 남성과 여성이 같아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복의 종류에 있어 남녀에게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장벽을 없애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남성복에서의 양성적 이미지는 복식자체에서의 성 구분의 무의미함과 자아내면의 욕망을 대담하게 표출하여 전혀 새로운 인간 이미지를 제시한다고 여겨진다. 독특한 개성에 따라 자유로운 삶의 주체가 되길 바라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거침없이 추구하는 현대인의 의식변화에 따라 양성적 패션은 이분법적 성 개념을 파괴하고 무성 또는 다중적 성 정체성을 표현하면서 성을 초월한 자유로운 정신세계의 산물이 된 것이다.

4. 성 도착적 이미지(Fetishism)

복식에서 성 도착적 이미지는 이성의 복식이나 특정 아이টে 성적 환상을 부여하고 관능적으로 연출하는 일련의 의복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성에 대한 기존의 고정 관념에 대한 저항과 일탈적 성의 정체성을 표현하며 유희적 성향을 띠기도 한다. 남성패션에서 성 도착적 이미지는 억압되거나 은폐되어 증폭된 욕망을 가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현대 남성들의 색다른 성 정체성을 표현해주고 있다.

디자이너 Gianni Versace는 남성을 거냥하여 여성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었던 장식이나 공들여 만든 디테일을 남성복에 적용하여 성 도착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Versace의 특징은 남성복과 여성복에 있어 동일한 스타일과 테크닉 및 소재 등을 사용하여 제작한다는 것이다. 남녀의상 모두 체형에 꼭 맞게 재단하여 선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며, 남성복에서 화려한 컬러의 조화

와 여성스러운 요소들을 대담하게 적용하였다. 러시아 발레단의 강한 색감, 중세 문장의 기하학적 문양들, Andy Warhol의 다양한 색감과 채색된 동물표피의 소재들, 동양이나 미국 Cowboy 복장의 세부장식 또는 아프리카 부족의 가면, 원시적인 바다 페인팅 등 그는 남다른 독창성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조화시켰다. 1980년대의 남성들이 모든 요소들이 절제된 Giorgio Armani 방식의 minimal 패션 속에서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표출하였다면 1990년대에 제시된 새로운 남성성은 Gianni Versace의 다채로운 색상과 강한 표현력 안에서 변화되었다. 그것은 강렬한 성적 매력과 호모성을 지닌 육감적 매력을 표출하는 것이었다. 특히 Versace는 여성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관능적이고 과시적인 매춘부에 두고 'pretty women syndrom'을 만들었고, Ken과 Barbie 인형처럼 여성적 이미지를 남성복에 같이 적용하여 컬렉션을 구성·발표함으로써 남녀 한 쌍을 이루는 통합된 패션 이미지를 창조하였다⁷⁾. 매춘부의 관능적 이미지를 남성에게 적용시켜 육체미를 과시하고 감성적이며 화려한 남성인 'Men without ties'를 만들어 내었는데, 여기서 남성은 전통적인 남성셔츠를 벗고 드레이프 진 셔츠를 입으며 가죽과 금속장식을 부착 시킴으로써 성 도착적 유형(Fetish-type)을 표현하였다⁸⁾. 그의 성 도착적 경향은 콜셋, 가죽, 고무 등으로 몸을 조이는 기법을 통해 제시되었고, 가학 또는 피학적인 변태성욕을 표현하도록 연출하였다. 여성의 관능적 이미지가 부여된 Versace의 남성 패션은 남성미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신체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복합적인 매력을 발산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동성애적 이미지나 양성애적 이미지에서 다소 차별화 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 것의 대담한 혼용에서 비롯되는 성 도착적 특성은 의복이 성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무의미하게 할 뿐 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은밀한 성적 취향을 과감히 노출시키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남성패션에 나타나는 성 도착적 이미지는 남성복에서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사회 계층적 속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성적이고 자유로운 남성상을 형성하였다(사진 6). 여기서 남성의 성 정체성은 보다



[사진 6] Fetish Image of Men's Fashion, 「Gianni Versace」, 1998, P.152.

풍부한 감성으로 당당하게 자기의 내면세계를 존중해 나가고자 하는 현대인의 자기 신뢰와 산업화된 사회에서 남성에게 요구되었던 가혹한 의무를 탈피하고 자유롭게 인생을 구가하고자 하는 남성상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남성상에 변혁을 가져왔다고 사료된다.

V. 결 론

현대 남성패션은 사회 계층적 우월 의식과 권위에서 출발하여 남성성을 대표해온 근대복식의 틀을 깨고 남성의 감성과 성적 특성을 표현하는 미학의 매개체로서의 성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즉, 성의 정체성을 지정하고 신체를 에로틱한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공식적인 규범보다는 개인적인 사고와 정서를 표현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남성패션은 사회 내에서의 주어진 자신들의 성 역할과 의무를 거부하고 개인적인 성적 기호를 대담하게 상징하거나 여성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남성 고유의 신체적 특성을 강화하였다. 의복의 요소와 심리적인 변화는 남성들의 이상이 육체적인 외모에 의해 상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관능적인 성적 대상이 주로 여성의 신체로 집중되어왔던 과거 통념을

깨고 남성의 육체를 강조함으로써 남성을 관능적인 성적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표현 방법은 자유분방한 젊음의 승배, 스포츠의 건강한 이미지, 성공적이고 영웅적인 남성상 등을 통해 보다 세분화된 성적 타입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중에서 동성애적 이미지는 여성적인 외모에서 벗어나 남성의 건강한 이미지를 동성애자 집단의 새로운 상징으로 선택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성 정체성에 대해 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도하고 자신감을 획득하였다. 그러한 패션 유형은 강인한 미국 전통의 남성상이었던 cowboys 패션이나 스포츠로 단련된 육체의 과시로 나르시스적 특성을 보이는 Jeans 및 Underwear를 통해 표현되었고, 평범한 복식들을 동성애자의 환상과 산물로 전환시킴으로써 남성패션에 성적 다의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영웅적 이미지는 정장수트에 스포츠 웨어의 비 구조적 특성을 도입하면서 강인한 남성의 신체를 강조하고 성적 매력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과거 남성 정장에 담겨있던 영웅적 우월감을 표현하여 위축되어 가던 남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보다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현대 남성의 특성을 제시해주었다. 남성패션에 나타나는 양성적 이미지는 다양한 여성적 장식 아이템과 함께 최고의 금기사항이었던 스커트까지 착용하게 되면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고정관념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복식을 통한 성 구분의 무의미함과 성적 욕망에 대한 대담한 노출을 통해 새로운 남성 유형을 제시해주었다. 그리고 성 도착적 이미지는 남성패션에서 사회적 속성을 제거하고 여성의 관능성에 근거한 신체 강조기법과 도구를 도입하면서 제시되었다. 내재되어 있는 은밀한 성적욕망을 노출하여 보다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의 세계를 존중해 나가고자 하는 현대인의 자기 신뢰를 표현하고 있다. 그와 함께 산업화된 사회에서 남성에게 요구되었던 가혹한 의무를 탈피하고 자유롭게 인생을 구가하고자 하는 남성상에 대한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성 정체성 표현 양상은 사회에서 성에 대한 절대성을 부인하고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다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참고 문헌

- 1) J. R. Broverman, "Sex Role Stereotypes and Clinical Judgements of Mental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0.
- 2) J. C. Fli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The Hogarth Press, 1930. Farid Chenoune, 「A History of Mens Fashion」, Paris : Flammarion, p. 17, 1993. 재인용
- 3) Carolyn G. Heilbrun, 「Toward a Recognition of Androgyny」,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1973.
- 4) Fred Davis,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2.
- 5) Marjorie Garber, 「Vested Interests—Crossing Dressing & Cultural Anxiety」, New York: Routledge, 1992.
- 6) Anne Hollander, 「Sex and Suit」, New York; Knopf, 1994.
- 7) 이민선, "복식에서의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회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8) 김이은,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9) 채금석, "현대패션에 나타난 양성적 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44호, 1999.
- 10) Colin Mcdowell, 「The Men of Fashion: Peacock Males and Perfect gentlemen」,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P. 196, 1997.
- 11) Aileen Ribeiro, 「Dress and Morality」, New York: Holmes & Meier Pub, 16—17, 1986.
- 12) Anne Hollander, 채금석 역, 「의복과 성」, 경춘사, p. 14, 1995.
- 13) 채금석, "현대 남성수트의 변천과 미학적 특성", 「복식」, 30호, p. 251, 1996.
- 14) Anne Hollander, 채금석 역, 앞의 책(1995), p. 12.
- 15) Fred Davis, 앞의 책(1992), 38—39.
- 16) 질 리포베츠키 지음, 이득재 역, 「패션의 제국」, 문예출판사, 144—145, 1999.
- 17) J. M. Block, "Conceptions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1973.
- 18) Fred Davis, 앞의 책(1992), p. 35.
- 19) Mary Ellen Roach—Higgins, Joanne B. Eicher, Kim K. P. Johnson, 「Dress and Identity」, New York; Fairchild Pub, p. 113, 1995.
- 20) Marjorie Garber, 앞의 책(1992), p. 132.
- 21) Marjorie Garber, 앞의 책(1992), 137—138.
- 22) Ted Polhemus, 「Street Style」, New York: Thames & Hudston, p. 24, 1994.
- 23) 조오지 퍼킨스·바바라 퍼킨스, 김재환 역, 「미국문학의 전통」, 한신문화사, p. 139, 1999.
- 24) Elisabeth Badinter 지음, 최석 역, 「XY—남성의 본질에 대하여」, 민택, p. 208, 1993.
- 25) Colin Mcdowell, 앞의 책(1997).
- 26) Wilson Laurel E. "The Cowboy: Real and imagined", 「Dress」, vol 23, The Coetume society of America.
- 27) 질 리포베츠키, 이득재 역, 앞의 책(1999), p. 168.
- 28) 사라 켄트, 재틀린 모로, 정소영 역, 「여성이 갖고 있는 남성의 이미지」, 삼신각, p. 84, 1996.
- 29) Jacqueline Herald, 「Fashion of A Decade The 1970's」, New York: Factson File, 28—29, 1992.
- 30) Colin Mcdowell, 앞의 책(1997), p. 174.
- 31) Anne Hollander, 채금석 역, 앞의 책(1995), p. 231.
- 32) 질 리포베츠키, 이득재 역, 앞의 책(1999), p. 180.
- 33) 타이론 패션연구소 편지, 「남자의 옷 이야기 1—정장편」, 시공사, p. 80, 1997.
- 34) Susan B. Kaiser 저, 김진구 외 역, 「복식사학심리학」, 경춘사, p. 69, 1990.
- 35) 채금석, 앞의 글(1999), p. 50.
- 36) Joel Lobenthal, 「Radical Rags— Fashions of The Sixties」, New York: Abbeville Press, 155—157, 1990.
- 37) Marjorie Garber, 앞의 책(1992), p. 2.
- 38)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Gianni Versace」, New York: Abrams, p. 151, 1997.